

해외의약뉴스

흡연은 정신 분열증에 원인이 되는가?

개요

영국 런던 킹스 대학(King's College)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새로운 메타분석은 15,000명의 흡연자와 273,000명의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61개의 관찰연구의 증거를 평가 한 결과,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에 비해 정신병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3배 이상이며,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년 먼저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정신병, 정신분열증, 흡연, 금연

Lancet Psychiatry저널에 게재된 메타분석은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들에 비해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3배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이전 연구들은 흡연과 정신병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일부 연구들은 담배가 흡연과 정신병간의 연관성에 직접적인 원동력이라고 조사했었다.

연구진들은 흡연이 정신분열증 약물치료나 음성적인 정신분열 증상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흡연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가설의 문제점은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후에만 흡연율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킹스대학(King's College)의 연구진들에 의해 진행된 새로운 메타분석은 15,000명의 흡연자와 273,000명의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61개의 관찰연구의 증거들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처음 정신병 증상이 발현된 환자들의 57%가 흡연자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정신병이 발현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매일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년 먼저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저자는 '정신질환자들은 담배를 자가 치료제(self-medicate)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흡연과 정신질환의 연관성 이론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James MacCabe 박사¹⁾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흡연이 정신병에 대한 심각한 발병가능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단순한 질병의 결과로 일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타분석에서 소수의 연구들은 담배 외에 다른 물질들의 소비를 고려했기 때문에 Kings대학팀은 담배와 정신질환의 상관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웠다.

니코틴, 정신병과 도파민

그러나 연구진들은 이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을 제시하였다. 정신과학, 심리학 및 신경과학연구소(IoPPN)의 정신의학 연구 교수인 Robin Murray박사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도한 도파민은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질환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니코틴의 노출은 도파민 방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신병 발병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과학, 심리학 및 신경과학연구소(IoPPN)의 연구원 Sameer Jauhar 박사는 ‘매일흡연, 산발적(sporadic) 흡연, 니코틴 의존성과 정신 장애의 발병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母) 집단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의 명확한 이점을 고려하여, 환자 그룹에서의 흡연 습관의 변화가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대학교 의대 연구진이 실시한 2014년도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약물 남용(특히 흡연)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4년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도 포함되었다.

- 심한 알콜 음용자의 경우 4배(하루 4개 이상 음용)
- 정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자의 경우 3.5배(연간 21회)
- 다른 약을 최소 10배 이상 사용하는 경우 4.6배
- 매일 흡연하는 사람 5.1배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6639.php>

1) 영국 킹스대학(Kings College) 정신과학,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소(IoPPN) 임상 부교수